

## 2019년 9월 1일 / 연중 제22주일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며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신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 입당성가 : 19번 '주를 따르리'

### 본기도

† 기도합니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 1 독서 : 집회서 3장 17절-18절, 20절, 28절-29절

**안 내** : 낮출 때 오히려 높아지는 하느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합니다.

**묵 상** :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화답송** :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 제 2 독서 : 히브리서 12장 18절-19절, 22절-24절

**안 내** : 우리가 있는 곳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느님의 도성입니다.

**묵 상** :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아름다운 그분의 사랑과 천사들과 만아들의 성대한 모임과 심판자 하느님, 의인들의 영, 그 사이에 바로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4장 1절. 7절-14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말씀의 샘’ 참조**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 172번 ‘그리스도의 영혼’**

## 영성체 후 묵상

끝자리는 어디인가?

바로 내가 가기 싫은 곳입니다.

끝자리는 어디인가?

바로 내 마음이 선뜻 끌어당기지 않는 곳입니다.

끝자리는 어디인가?

바로 내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 끝자리에 기꺼이 다가갈 때

평화의 하느님께서 내 옆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런 끝자리에 즐거이 앉을 때

사랑의 성령께서 따뜻하게 내 손을 잡으실 것입니다.

그런 끝자리에 바로

내가 천국에 가서 앉을 방석이

포근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6번 ‘순교자의 믿음’**

## 2019년 9월 8일 / 연중 제23주일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제자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모든 인간적인 집착과 소유물을 버림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버리고 비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 입당성가 :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제 1 독서 : 지혜서 9장 13절-18절

**안 내** : 솔로몬은 하느님께 받은 선물 중 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묵 상** : 유식과 무식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유식과 무식은 동전의 양면이자 자용동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알면 알수록 세상과 우주는 신비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는 우리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답송** :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제 2 독서 : 필레몬서 9절-10절, 12절-17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오네시모를 필레몬에게 돌려보내며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맞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묵 상** : 주님께 희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웃을 너그럽이 대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4장 25절-33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말씀의 샘’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7번 ‘정성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498번 ‘예수여 기리리다.’**

## **영성체 후 묵상**

주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비웃는 이유는

사랑의 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와 사랑은 포기과 희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를 버립니다.

참된 지혜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낮추는 일입니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3번 ‘순교자 찬가’**

## 2019년 9월 15일 / 연중 제24주일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서는 참다운 회개를 가르쳐 주십니다. 작은 아들처럼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처지를 진실하게 볼 수 있을 때, 하느님께 돌아가는 참다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희생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는 겸손한 자세는 참다운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의 삶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회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 입당성가 : 56번 '목자를 따라서'

###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 1 독서 : 탈출기 32장 7절-11절, 13절-14절

**안 내** :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백성을 대표하여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서는 타락한 백성을 벌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하는 힘이 됩니다.

**화답송** :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 제 2 독서 : 티모테오 1서 1장 12절-17절

**안 내** : 죄인의 구원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목적입니다.

**묵 상** : 인간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그로 인해 고통을 느낍니다. 하느

님은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움으로 죄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회개하여 구원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5장 1절-32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말씀의 샘’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 158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 **영성체 후 묵상**

회개는 자기를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아집에서, 집착에서,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진 영혼이 매사에 하느님의 뜻을 알고 올바르게 인식하고 순명하여, 하느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만이 자유롭게 하고 낮은 자 되어 하느님을,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5번 ‘순교 성인’**

**2019년 9월 22일 (경축이동)**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103위 순교 성인들과 이름 없이 박해의 칼날에 스러져간 모든 순교자를 기리는 날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위하여, 그리고 신앙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분들입니다. 신앙 선조들의 숭고한 순교 정신을 되새겨 믿음의 본보기로 삼을 것을 결심하면서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285번 '103위 순교 성인'**

**본기도**

† 기도합니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 독서 : 지혜서 3장 1절-9절**

**안 내 :** 하느님께는 의인들의 영혼을 번제물처럼 받아들이셨습니다.

**묵 상 :** 의인들의 영혼은 언제나 하느님 품 안에 있습니다.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거룩한 이들에게는 은총과 자비가 한량없이 주어집니다.

**화답송 :**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 2 독서 : 로마서 8장 31절-39절**

**안 내 :**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묵 상 :**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이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들입니다. 고통도 역경도 죽음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9장 23절-26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말씀의 샘’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7번 ‘정성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163번 ‘거룩한 성체여’**

### **영성체 후 묵상**

한국 천주교회는  
하느님의 섭리가 순교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하느님을 증언하면서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내 놓으신  
그분들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순교성인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신앙을 본받고 따르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순교자적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3번 ‘장하다 순교자’**

## 2019년 9월 29일 / 연중 제26주일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병들고 가난한 라자로입니다. 그런데 라자로의 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첫째와 꼴찌가 바뀐 상황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면,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 입당성가 : 37번 '행복한 사람들'

### 본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 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 1 독서 : 아모스 예언서 6장 1절, 4절-7절

안 내 : 이제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묵 상 :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득 찬 비대해진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아모스 예언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너며 흐르게 하라고.'

화답송 :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제 2 독서 : 티모테오 1서 6장 11절-16절

안 내 :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계명을 지키십시오.

묵 상 : 영예와 권세가 그 분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고통과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인내를 낳아, 우리에게 고통 받는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합니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6장 19절-31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말씀의 샘’ 참조**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 157번 ‘예수 우리 맘에 오소서’**

## **영성체 후 묵상**

죽음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죽음은 삶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바르게 맞이하려 한다면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화로운 죽음을 바란다면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삶 안에서 평화로운 마음을 지니며 살아야 합니다.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평소에 기쁜 마음으로 생을 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자신의 삶을 결산하는 인생의 마지막 장입니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6번 ‘순교자의 믿음’**